

New Leader I.

'나'만 생각하는 사람과 나와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1. 나와 공동체

[로마서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and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의 위치를 알 때 내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2:5절을 보라.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를 이룬 상태를 '한 몸'이라 말한다. 반대로 말하면 한 몸은 서로 다른 지체로 되어 있다. 영어로 보니 한 몸을 이룬 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각 지체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의 상태를 말한다. 각 지체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몸, 성숙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몸들의 특징은 '갈등'이 없다. '조화'를 이룬다. '협력'한다. 서로 '존중'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누가 리더이겠는가? 당연히 '나와 공동체를 보는 사람'이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나만 보는 사람** - 시각이 좁다. 편협하다. 이기적일 수 있다. 나 이외에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에 관심이 없다.

(2) **나와 공동체를 보는 사람** - 시각이 넓다. 이해력이 있다. 협력의 마음이 있다. 나와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은 나의 일이다.

2. 정보의 왜곡 (나만 보는 사람의 유형)

나만 보는 사람의 시각이 왜 리더의 자질에서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 나만 보는 사람의 관심은 '자기'에 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 중심형'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욕망'을 실현 시키는 것이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권력'이다.

* **사울** -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건이 다윗의 등장이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사울이 느낀 것은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힘이 분산되었다고 느꼈다. 그 사건을 통해 '본인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에 사울이 한 일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다. 사울의 문제는 왕의 신분임에도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권력 중심형' 인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리더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1) 정보의 시대

나와 공동체를 함께 인식하는 리더가 왜 중요한가? 이 시대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강남순' 교수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시평'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 '세 종류의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직업이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든 사람은 대부분 세 종류의 역할을 한다. 매니플레이터 (manipulator), 매니저, 그리고 리더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두 영어 단어가 있다. 틀린 정보 (misinformation)와 허위 정보(disinformation)이다. 틀린 정보란 잘못된 정보다. 반면 허위 정보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왜곡시킨 정보다. 이 둘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의도와 결과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들이다.

(2) 매니플레이터 (manipulator)

허위 정보를 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국 친구를 이간시키고,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동료들로부터 불신감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사회적 생명까지 파괴시킨다. '반쪽 사실'을 '전체 사실'로 왜곡시키고, 후에 진실과 사실이 드러나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법이 없다. 매니플레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일그러진 인간성'이다. 매니플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특정한 사회, 종교, 정치 집단, 또는 특정한 미디어도 매니플레이터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특징은 진실과 사실을 뺄지 않으면서도 감추고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매니플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재는 다양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사회적 바이러스와 같다.

(3) 매니저

매니저의 주요 기능은 현상 유지다. 물론 한 공동체, 집단, 또는 사회에서 이러한 매니저와 같은 사람의 역할은 필요하다.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 차원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니저의 역할만 하는 이들도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현실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현상 유지만이 아닌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사회에 매니플레이터나 매니저만 존재한다면 여러가지 점에서 퇴보하게 된다.

(4) 진정한 리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는 재 개념화된 리더다. 흔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아니다. 리더란 학력의 고하 또는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중의 보기 방식(double mode of seeing)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중심부만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동시적으로 본다. 권력이란 모든 곳에 존재한다. 하다못해 아이들 세계에서 나이, 성별, 가정 배경, 또는 육체적 힘 등에 따라 권력관계가 작동한다. **리더란 다양한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서 중심과 주변을 늘 함께 보면서 주변부까지 포용하는 사람이다.** 강남순 교수의 진정한 리더의 덕목 중에 주목할 것은 '이중의 보기 방식'이다. 중심과 주변을 함께 보면서 주변부까지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맞는 말이다. 리더란 나와 공동체를 함께 보는 사람이다.

3. 정보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선 리더의 특징

(1)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세상

지금은 정보가 '힘'이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누군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보'를 힘으로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왜곡된 정보는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 사울은 '정보'에 반응하는 리더였다. 사람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울의 권력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는 도망자, 범죄자의 신분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진리'에 반응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진리는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ㄱ) 다윗 - 결국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ㄴ) 열두 명의 가나안 정탐 리더 - 정보에 반응한 열 명의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좌절시키고 불안하게 했다.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리더로 세우셨다. 그들이 공동체를 살렸다.

(2) 진리의 현장성 -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모델이 되신다.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가 얼마나 실재적, 현실적인지를 보여준다. 진리는 탁상공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현장에서 적용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적용되고 검증된 것이 진리이다. 정보의 맹점은 내가 경험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고할 뿐이다. 그러나 진리는 경험해야 한다.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그 진리는 나에게 있어서 '정보'일 뿐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분의 리더십은 언제나 현장의 '공동체', '이웃'에게 있었다. 진정한 리더는 현장 중심의 리더이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장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보는 것이 '현장 중심의 리더'이다. 다윗을 보라. 나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골리앗에 반응한 것이다.

(3) 언약 관계의 리더십

나와 공동체는 언약 관계이다. 떨어질 수 없다. 언약 관계가 아니면 공동체를 섬길 수 없다. 위기가 오면 나타난다. 다윗을 보라. 그는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 사람들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이 시글락에 이른 다윗의 공동체를 공격했을 때이다.

[사무엘상 30: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에게 어려운 위기가 오자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결정한다.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그러나 다윗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요나단은 위협을 넘어 다윗을 살린다. 무엇이 차이인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언약 관계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 '절대 관계'이다. 리더는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언약 관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목자는 양을 믿는다' '아버지는 자녀를 신뢰한다. 믿는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넘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언약 관계 안에서 신뢰했기 때문이다. 다른 리더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여호수아는 신뢰했다.

4. 뉴리더 - 나를 넘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공동체는 언약 관계에서 존재한다. 나를 넘어 나와 공동체를 언약 관계 안에서 인식하는 진정한 리더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주실 것이다.